

節을 포섭하는 일본어 「的」에 관하여*

이광수**
kslee@duksung.ac.kr

<目次>

- | | |
|-------------------------|-----------------------|
| 1. 서론 | |
| 2. 본론 | 2.3 節을 포섭하는 「的」의 유사표현 |
| 2.1 節을 포섭하는 「的」의 통어적 특성 | 3. 결론 |
| 2.2 節을 포섭하는 「的」의 意味 | |

主題語: 的(teki), 節의 포섭(Including a clause), 복합사(compound particle), 조동사(auxiliary verb), 모달리티(modality)

1. 서론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만 아니라 일본어에서도 「的(teki)」는¹⁾ 「運命的」에서의 「的」와 같이 주로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2자 한자어 명사에 붙어 형용동사의 어간을 형성하는 形容詞化素(adjektivizer)로서의 기능을 하는 접미사로 인정되고 있다.

본래 접미사란 형태소나 단어 레벨의 語基에 후접하여 독립된 단어를 파생시키는 형태소를 말한다.

그러나,

- (1) a. 「ほとんどのウィルス(ソフト)はブロックできます」的なセリフ。

(blogs.yahoo.co.jp 2011.4.26)

- b. でも、完璧先生はスルーなわけですよ。だから私も間違っていないと思って、そのまま読み続けたわけですよ。そしたらですね、「間違ったまま読んでしまうのか」的なことを言われまして、やっと気づいたんですよ。

(blogs.yahoo.co.jp 2011.4.22)

* 本研究は 徳成女子大學校 2012年度 校内 研究費 支援에 의해 遂行되었음.

** 徳成女子大學校 日語日文學科 教授

1) 본고의 주제는 일본어 「的(てき)」에 관한 것이므로 「的」은 [teki]로 읽어 표기법에 맞춤.

- c. この漫画が面白い！第一位と書いてあったので前から興味があったから買ってみたのですが、主人公(作者そのもの)の気が弱すぎて見ていて暗くなるかんじ。途中のくだりで「旅に出れば素敵な出会いがあると思った」的なことを書いてあったけどあれだけおどおどしてちゃ素敵な出会いもなにもないでしょう。「ある女性のために走った」的に書いてありますが、勝手に行動してどうなのかな。
(Amazon.co.jp 2012.1.13)

에서와 같은 「的」의 용법은 명백히 접미사로서의 「的」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일본의 웹상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的」의 용법은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언어현상이다.

본고의 목적은 (1)에서 보이는 節을 구성하는 「的」의 문법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용법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며, 또한 일본의 소설자료나 인터넷의 블로그에서 나오는 용례를 중심으로 節을 구성하는 「的」의 용법에 관하여 고찰하여 그 결과를 일본어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2. 본론

2.1 節을 포섭하는 「的」의 통어적 특성

일본어에서의 「的」는 형용동사의 어간을 형성하는 접미적 형태소로 메이지 시대에 영어의 -tic이나 형용사적인 단어의 번역으로 사용되었으며, 原(1986:73)의 지적에서와 같이 예를 들어 「romantic」이나 「systematic」 등을 「浪漫的」「組織的」로 번역한 것이 시초인 듯하다. 2)

- (2) a. 内的
b. 内面的
c. 十日ほど前、たしかに加藤は、影村に冬山へ行くといった。それは売り言葉に買い言葉
的なやりとりで決定的なものではなかった。
(新田次郎『孤高の人』)
d. 「ほとんどのウィルス(ソフト)はブロックできます」的なセリフ。
「嫌ならやめろ」的な考え 3)

2) 영어의 「warlike tribe」를 번역할 경우, 「戦争が好きな部族」로도 번역할 수 있고, 동일한 의미의 압축된 표현으로서 「好戦的な部族」로도 번역할 수가 있다. 즉 「warlike」의 어휘적 의미의 「好戦」에 형용동사로서의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형태소로서 「的」가 사용되는 것이다.

(2a)와 (2b)에서와 같이 형태소나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휘적인 접사요소인 「的」가 (2c)에서와 같이 통어적이고 생산적인 句나 文의 단위까지 그 선행요소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⁴⁾ 「的」는 예를 들어 「内的」의 「内」와 같은 형태소나 「内面的」의 「内面」과 같은 단어에 접속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되지만, 「的」의 전향부분이 (2c)에서와 같이 句의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句에 후접하는 「的」의 용법이 현대 일본어로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影山은 판단하고 있다.⁵⁾ 影山은 이와 같은 「的」의 용법을 단어의 내부에 句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句의 포섭>이라고 부르고 있다⁶⁾.

그러면 (2d)의 경우를 살펴보자. 「ほとんどのウィルス(ソフト)はブロックできます」的なの「嫌ならやめろ」的なの 부분이 하나의 단어가 되고 「的」의 전향부분이 술어를 포함하는 節이 되며 이를 影山식으로 나타내면 節을 포섭하는 「的」의 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的」를 접미사로 보고 그 전향부분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파생시키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節의 단위에 후접하는 「的」를 접미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다.

影山(1993:328)에서는 전향부분을 句로 확장하는 용법을 예외적으로 보고 있으며, 접사에 의한 단어의 구성에 있어서 句의 배제의 원칙이 기본이라는 점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확장은 자유자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후향부분(즉 합성어의 주요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전향부분에 있어서 句의 확장을 허용하는 접미사로서 「的」를 들 수 있는 것이다.

- (3) a. それにしても、山本太郎という名前から来るイメージは、それほど日本人の平均値的句いがあるのだろうか。(曾野綾子『太郎物語』)
- b. 何か華やかな美しい音楽の快速調の流れが、見る人を石に化したというゴルゴンの鬼面的なものを差しつけられて、あんな色彩やあんなヴォリュームに凝り固まったという風に果物は並んでいる。(梶井基次郎『檸檬』)

3) 北原(2004:72)에서 재인용.

4) 山田(1983:247)에서는 일본어에서 「的」가 그 선행요소로 모든 문법단위에 걸쳐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原因으로 일본어에 형용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접미적 요소로서 한자어 「的」의 造語力이 크다는 점을 들면서 「豈それ然らんや」的の文章 (坪内逍遙『文章新論』明治19年7月)와 같이 절이나 구에도 접속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5) 影山(1993:328)) 참조.

6) 影山(1993:328)에서는 접미사에 있어서 구배제의 원칙이 깨어지는 이런 종류의 접미사의 용법을 예외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森山(1986:22)에서는 「日本人の平均値的」나 「ゴルゴンの鬼面的」와 같이 句를 포섭하는 접사 「的」는 전체를 形容語化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형태적으로는 「平均値」나 「鬼面」에만 붙는데, 意味적으로는 「日本人の平均値」와 「ゴルゴンの鬼面」이라는 句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파생한 뒤의 합성어가 非名詞적인 形容語적이 되는 것이다.⁷⁾ 이는 명사에 접속하여 전체를 형용어화한다고 하는 접미사 「的」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서 선행성분에 관련한 「的」를 어떠한 문법단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的」를 그 선행성분으로 나타나는 節을 포섭하는 접미사로 본다는 관점이다. 이는 전향요소와 「的」가 합쳐져서 형용사로서의 파생어를 형성한다는 관점인데, 이 경우 접미사 「的」의 語基는 형태소, 단어, 구, 문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節을 하나의 단어(합성어 또는 파생어)로 취급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的」의 선행성분을

- (4) a. セミの抜け殻を見て「土の中にいる間は外へでて空を飛ぶことなんて思いもしなかっただろうな」と思った。」的なことを仰った時は、ものすげえ感動したのです。

(blogs.yahoo.co.jp 2007.3.20)

- b. あるストーリーで悟空とピッコロが戦うシナリオがありますが、勝つと会話でピッコロが、「お前は俺の弟子だからな」的な事を言ってきます。 (blogs.yahoo.co.jp 2007.5.19)

예서와 같이 「引用節」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 「的」는 形式名詞와 같은 기능을 하며 「的な」가 인용의 표식 「という」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의 「的な」는 「という」보다 완곡적이고 우회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접미사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7) 歴史的으로 볼 경우, 「的」는 明治期에서는

- 女の児だって、成るほど今までは解剖的の頭がなくても済んでいた。(谷崎潤一郎『痴人の愛』)
- 近代的の美人の資格は、顔だちよりも才氣煥發な表情と態度とにあるのだ。(谷崎潤一郎『痴人の愛』)
- 日本人形的の型にはめこまれた女でないことは、ぴんぴんひびくような言葉のやり取りを聞いてるとよく分った。(新田次郎『孤高の人』)

예서와 같이 名詞性を 남기고 「~的」로 되었지만, 現在, 「~的な」로 되어 거의 形容動詞化하고 있다.

- (5) a. 外に出しっぱなしでも平気な面子ですが、ピアノをきれいに咲かせ続けるには、厳寒期は夜だけ霜を避けられる場所に入れた方が...と、当店初入荷のスパニッシュブルーベル。ピアノの色と併せて見ても紫系の同系グラデーションでまとめました的ですか。

(www.hamaengei.com/container/10-1016.html)

- b. ヤマトカフェのチラシ...もうちょっと直す予定ですが一応絵の部分はほぼ形になったかも…。色々こんなはずじゃなかった的ですよ。(twitpic.com/7wpvt5 2011.12.22)

(5)에서는 「的だ」가 인식적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조동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事態에 대한 화자의 완곡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認識的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的」는 접미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6) a. よし、好い調子だ、と思ったが、よく見ると、彼らの目はまだ「どこの東洋の馬の骨だか知らないが、黒板の前に何で立ってやがるんだ」的な目だ。

(藤原正彦『若き数学者のアメリカ』)

- b. そして、テンションを笑いにさせてくれるのが誤字(それ以前)の多いストーリーです。あるストーリーで悟空とピッコロが戦うシナリオがありますが、勝つと会話でピッコロが、「お前は俺の弟子だからな」的なの事を言ってきます。(blogs.yahoo.co.jp 2007.5.19)

위의 문의 경우, 「的な」의 선행절은 주절 중의 명사를 받는 관계사 「的」가 종속절을 유도하여 연결요소가 되는 형용사절이 된다. 이 형용사절은 主名詞를 수식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문에 후접하는 「的」를 접미사로 간주할 경우, 전체가 하나의 단어(합성어)로 된다. 이는 결국 소위 影山の 구의 포섭과 마찬가지로 절의 포섭이 형성된 단어로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節을 포섭하는 「的」는 접미사로 보지 않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이나 절에 후접하는 「的」는 단어 레벨의 파생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절을 구성하는 「的」는 접미사로 부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형용사절을 구성하는 「的」의 선행문은 형용동사의 어간이나 파생어의 語基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山下(2005)에서도

- (7) a. 雇用の受け皿的な性格が強かった建設業でも、就業者数の減少が続く。

(朝日新聞 1999.4.5)

- b. テレビや新聞にも読者やタレントのおしゃべり的なことばがあふれている。

(朝日新聞 1996.8.18)⁸⁾

와 같은 용례를 통해 句에 접미사가 결합한 형식을 「的의 포섭」이라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역시 影山の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 (8) a. 得意科目を聞かれても、それが御社の仕事に役立つな発言は、もともと企業に嫌われる。
(浅羽道明『大学で何を学ぶか』)
b. どこか一発当ててやろう的な熱氣があつて、面白かった… (朝日新聞 1998.5.29)⁹⁾

에서와 같은 예에서 보이는 「的」의 선행부분을 句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선이 있는 선행부분은 술어형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句라기 보다는 文 레벨의 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山下는 (8)에서와 같은 선행구와 후접하는 접미사 「的」와의 관계를 「인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선행부분을 節이 아니라 句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的」를 접미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인용절에 후접하는 「的」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접미사라기보다는 「という」나 「このような」와 치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용의 조사에 상당하는 복합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的」는 그 선행부분에서 나타내는 표현을 문중에 포함시키는 인용의 기능을 하고 있다.¹⁰⁾

- (9) a. 「そこまでやるか」的趣味
b. 「疑わしきは罰する」的な報道は控えよう。

이와 같이 인용절을 포섭하는 「的」가 접미사에서 복합사와 같은 용법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的」가 가지고 있는 표현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즉 「的」의 의미범위가 애매하고, 나타내는 의미영역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용상의 편리함과 형식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的」를 접속시키려는 의도만 있다면, 어종(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을 불문하고 가능하며 나아가 문법단위를 불문하고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的」의 선행절은

8) 山下(2005:141)에서 재인용.
9) 山下(2005:142)에서 재인용.
10) 山下(2005:147)는 연체수식구조에 있어서 「的」는 피수식어의 내용보충이 되는 선행부분을 인용하여 문중에 포함시키는 인용기능과 그 선행부분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10) a. 「何でもやってやろう」的な度胸の良さは、さしずめ三男坊のノンシャランぶりをほうふ
つさせるものがある。 (五木寛之『風に吹かれて』)
- b. 日本の大学には「よく遊び、よく遊ぶ」的の氣風が根底に流れているように感じる。
(朝日新聞 1994.5.4)
- c. 「そこまでやるか」的趣味をもつJリーガー人大集合 (朝日新聞 1994.11.22)¹¹⁾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지·명령·의문」 등의 다양한 모달리티를 반영하고 있다.

선행요소로서 節이나 句를 포섭하는 「的」는 형태소나 단어를 語基로 취하는 「的」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통어적이고 생산적이며 문법적인 형식임에 비해 후자는 어휘적이고 고정되어 있으며 사전적인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節을 포섭하는 「的」의 경우 완전히 통어적인 것으로 모든 종류의 문에 임의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시적으로 만들어 내는 어법으로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법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2 節을 포섭하는 「的」의 意味

遠藤(1984:130)에서는 「的」가 문에 후접하는 경우로

- (11) 「動もすれば俗になる。突拍子もねえことを言やがる的になる。」
(二葉亭四迷『余が言文一致の由来』)

와 같은 메이지 시대의 文의 예를 들면서, 주로 비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的」의 용법은 현대 일본어에서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예문을 北原(2004:73)에서도 거론하며 『『嫌ならやめろ!』的な考え』와 같이 節을 포섭하는 「的」의 용법이 현대 일본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 일본어에서는 文(정확히는 節)에 후접하는 「的」의 용법은 웹상에서 두드러지게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遠藤가 언급한 80년대에는 오늘날의 節을 포섭하는 「的」의 용법이 웹상에서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여기에서는 節을 포섭하는 「的」의 意味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우선 「예시」의 용법을 살펴 보자.

11) (10b)와 (10c)의 예문은 모두 山下(2005:143)에서 재인용.

- (12) a. アイドルフানের節操のなさは、昔からわかってたことで、事務所だって承知の上だったろうし、何となくオブラートに包んで、みなさんマナーは守りましょう的なお願いで済ませてたのに、今、ここで強い姿勢にでたのは このマーチングJに本気で向かいたいからじゃないかしら。 (blogs.yahoo.co.jp 2011.4.12)
- b. きれいな声に哲学的? というか、なんというか、私のバカ脳では理解できないような、摩訶不思議ワールドな歌詞。人見知りで、ご飯はあんまりたくさん食べません的なが多い(笑) ... (blogs.yahoo.co.jp 2011.4.12)
- c. たぶん季節ハズレに咲いているのでは、珍しいとは言えないだろうけどなんだか見つけた的な気がした裏山散歩でした。 (blogs.yahoo.co.jp 2009.11.19)
- d. ヘタでもいーじゃん! ゲームblogのパソコンですぐにプリキュアと遊ぼう的な何かに関する詳細記事。 (gaseneta.at.webry.info/201009/article 2010.9.9)

예시적 용법에서는 피수식 명사(お願い・子・気・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속성을 예로 들어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의 「的」은 인용과婉曲의 의미를 내포하는 「というような」나 「というふうな」등과 지적의미에 있어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的」은 「というような」나 「というふうな」등과 문체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로 젊은 층에서 다용되며 유행어의 의식이 짙고, 한편으로는 간결성이나 무언가 티를 내고 싶어 하는(かっこよさ)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2)

예시적 용법과 유사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인용」의 용법을 들 수 있다.

- (13) a. そして、テンションを笑いにさせてくれるのが誤字(それ以前)の多いストーリーです。あるストーリーで悟空とピッコロが戦うシナリオがありますが、勝つと会話でピッコロが、「お前は俺の弟子だからな的なことを言ってきます。13)
- b. セミの抜け殻を見て「土の中にいる間は外へでて空を飛ぶことなんて思いもしなかっただろうなと思った。」的なことを仰った時は、ものすげえ感動したのです。 (blogs.yahoo.co.jp 2007.3.20)
- c. でも、僕と先輩はだべって話してました。正直、普段はあまり話をした事がなかったのです。お前ってさあ、やっぱり変わってるよな的なことを言われて、そうっすか? 自分ではまったく気にしていないんですけど~などとやり取りしているうちに、どういうわけか恋愛の話になったのです。 (blogs.yahoo.co.jp 2011.4.6)
- d. ウスターソースについて熱く語ってました。「私はこの大学の食堂にウスターソースを

12) 山下(2005:148)에서는 「的」은 전접어가 선행절에 「예시」와 「비유」의 의미를 첨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 (4b)의 예를 반복함.

導入したパイオニアである」的なこと言っていました。 (blogs.yahoo.co.jp 2011.4.12)

- e. 担任の先生の面談の時の短い時間の顔みせでこちらにはまったく興味もなさそうな感じがしたのだけど、冷静にクラスのメンバーや人数の説明には応じてくれたけど、いっしょに頑張りましょうね的な発言も雰囲気も、もちろんおまかせください的な事もなかったのはこの子は支援級の子供で交流しにくるだけだから1-4の担任の管轄外(というのも大げさか?)って事なのかなあ。
(blogs.yahoo.co.jp 2011.4.6)

이와 같이 「的」가 인용을 나타내는 경우, 인용절을 구성하게 되며 피수식명사는 「こと」나 「発言」과 같은 발화명사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비유」의 용법을 살펴보자.

(14) a. 電球を灯した的な感動がわきあがりました! (blogs.yahoo.co.jp 2010.9.14)

- b. 業者さんにとってみると、「カモがネギしょって来た」的なお客さんになってしまうので、私からすると、投資しない方が儲かる…くらいの感覚ですね。

(hijikisokuhou.doorblog.jp 2012.2.14)

이와 같은 비유의 의미는 수식하는 내용이 진실은 아닌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떤 대상이 진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的」의 선행절은 성구나 속담과 같은 표현이 다용되며, 「まるで生き返った的な…」와 같이 유사성을 강조하는 진술부사와 같이 쓰일 수도 있다.

「的」의 선행절이 피수식 명사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 인용절과는 달리 내용절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자.

(15) a. 「だからどうする」の部分が一番重要で、こ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的なインフォは正直
いらないのだ。このような情勢があるという事実をインフォするだけではダメなのだ。

(blogs.yahoo.co.jp 2009.10.12)

- b. ものすごく久々に、Yahoo!知恵袋の「数学」のコーナーを見たのですが、情けないくらい、丸投げ質問ばかり。本当にこのあり方がいいと思いますか?

みなさん。「●●の場所は品川のどの辺ですか? 道に迷っていて……」

「あ、△△のあたりですよ」的な質問まで否定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もちろん常識的に考えれば分かることだと思いますが、このような例を出されて論点をずら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ので、念のため)。
(blogs.yahoo.co.jp 2011.3.11)

내용절은 피수식 명사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という」와 바꿀 수 있으나 완곡적이며 예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앞의 (5)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식적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的」의 경우,

- (16) a. 外に出しっぱなしでも平気な面子ですが、ビオラをきれいに咲かせ続けるには、厳寒期は夜だけ霜を避けられる場所に入れた方が...と、当店初入荷のスパニッシュブルーベル。ビオラの色と併せて見ても紫系の同系グラデーションでまとめました的ですね。
 b. ヤマトカフェのチラシ…もうちょっと直す予定ですが一応絵の部分はほぼ形になったかも…。色々こんなはずじゃなかった的ですね。 (twitpic.com/7wpvt5 2011.12.22)

에서와 같이 형태적으로는 「的だ」로 나타나며, 「ようだ」「みたいだ」와 같이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파악의 모달리티(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의 「的だ」는 조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 (17) a. 楽しくなかったけど負けるもんか的になんとか頑張った。 (blogs.yahoo.co.jp 2011.4.6)
 b. 何を言おうが自由ですが、自分が正しくて相手が間違っている的発言は良くないね。
 (blogs.yahoo.co.jp 2011.9.6)

「그와 같은 느낌이 든다」와 같이 확실한 언급을 피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완곡적인 서술로써 「ように」나 「ようだ」와의 치환이 가능하다.¹⁴⁾

물론 節을 포섭하는 「的」를 의미상으로 분류하는 데는 유사관계를 나타낸다는 공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별개의 의미라기보다는 연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的」이 사용되는 심리적 배경에는 어떠한 발화내용을 바로 말하면 되는 것을 애매하게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하지 않는 도피적인 자세가 느껴진다는 北原(2004:71)의 지적도 흥미해 볼만 하다. 이와 같은 節을 포섭하는 「的」이 유행하는 것은 사물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얼버무리려 하며, 엄밀한 표현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일본의 젊은 층들의 언어의식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節을 포섭하는 「的」의 사용은 다분히 비공식인 것으로 그 간결성과 유행성 그리고 웹언어

14) 奥秋(1999:40)에서도 「<最近の若者はだ>的言い方は好きじゃないですよ」와 같은 용례가 평론가까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文이나 句를 일괄해서 하나의 체언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완곡(ぼかし)표현으로 부르고 있다.

(web language)로서 다용되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節을 포섭하는 생산적인 「的」의 사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 節을 포섭하는 「的」의 유사표현

- (18) a. 電球を灯した的な感動がわきあがりました。
 b. 電球を灯したような感動がわきあがりました。
 c. 電球を灯したみたいな感動がわきあがりました。

비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18a)와 유사한 내용을 나타내는 (18b)와 (18c)에서는 문체적 차이가 있다. (18b)의 표현이 가장 중립적인 것이며, (18c)는 구어적인 표현이고 이에 비해 (18a)의 節을 포섭하는 「的」가 사용되는 경우는 실제회화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문장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森山(1986:22)에서는 전체를 形容語化하는 기능을 가지는 접사의 예로서, 「~風」, 「~式」, 「~的」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유사한 통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19) a. 鰻屋での壮行会は大堂社長によるまたいささか大袈裟な「我が社の栄光と未來は森川君の双肩にあり」式の挨拶のあと、森川のこれもまた大時代的な「我死してもなお前進」ふうの返答挨拶でスタートした。 (椎名誠『新橋烏森口青春篇』)
 b. 鰻屋での壮行会は大堂社長によるまたいささか大袈裟な「我が社の栄光と未來は森川君の双肩にあり」的な挨拶のあと、森川のこれもまた大時代的な「我死してもなお前進」的な返答挨拶でスタートした。

(19a)에서 나오는 「式」나 「ふう」를 포함하는 형용사절은 후접하는 명사 「挨拶」와 「返答挨拶」를 수식하고 있는데, (19b)에서와 같이 동일한 형용사절을 만드는 통어적 기능을 가진 「的」와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물론 (19b)와 같은 文은 한국어에는 통용되지 않는 「的」의 용법이므로 이를 번역할 경우,

「우리 회사의 영광과 미래는 모리가와군의 양어깨에 있다는 식의 인사 뒤에, 모리가와군의 인사 역시 시대적인 나 죽어도 오직 전진이라는 식의 대답으로 스타트했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형용사절을 포함하는 「式」나 「式の」는

(20) a. 「忘れなばこそ思ひ出さず候」式に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毛利可信『橋渡し英文法』)¹⁵⁾

b. 「忘れなばこそ思ひ出さず候」的に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21) a. 男のコロシ文句は直球型が多いが、それにくらべて女のほうは、「課長の背中見てるの好きなんです」式のひねりのきいたものが目立つ。(朝日新聞 1994.11.20)¹⁶⁾

b. 男のコロシ文句は直球型が多いが、それにくらべて女のほうは、「課長の背中見てるの好きなんです」的なひねりのきいたものが目立つ。

와 같이 「的に」나 「的의」와 바꿀 수 있어 그 유사성이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으로 한국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節을 포섭하는 「的」의 통어적 특성과 의미용법과 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는데,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는 형태소나 단어를 語基로 취하는 어휘적이고 접미사적인 「的」가 文 레벨의 형용사절을 그 선행부분으로 포섭하는 경우, 통어적이고 생산적인 복합사나 조동사적인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는 「的」가 文中에서 「というよう(な)」와 공통되는 완곡적인 인용표식의 기능이 인정되고, 문말에서 「だ」와 결합하여 인식적 모달리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節을 포섭하는 「的」는 비공식적이고 우회적이며 주로 젊은 층이 웹상에서 다용하며 유행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본어에서 節을 포섭하는 「的」를 사용하는 경향은 아마도 더욱 진전되고 그 다양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15) 影山(1993:328)에서 재인용.

16) 山下(2005:146)에서 재인용.

【參考文獻】

- 孫在賢(2008)「일본어 차용접미사 ‘的(teki)’의 한일번역의 제문제」『번역학연구』한국번역학회, pp.219-243
- 遠藤織枝(1984)「接尾語『的』の意味と用法」『日本語教育五三』日本語教育学会, pp.125-138
- 奥秋義信(1999)「そこが知りたい日本語教育なんでも相談」『月刊日本語』11月刊 アルク, pp.40-41
- 影山太郎(1993)『文法と語形成』ひつじ書房, pp.326-331
- 北原保雄(2004)『問題な日本語』大修館書店, pp.71-75
- 寺村秀夫(1984)『日本語の意味とシタス II』くろしお出版, pp.242-247
- 原由起子(1986)「的 —中国語との比較から—」『日本語学』5—3, 明治書院, pp.73-80
- 藤居信雄(1975)「的ということば」『言語生活』七一号、筑摩書房, pp.71-76
- 森山卓郎(1986)「接辞と構文」『日本語学』五一三, 明治書院, pp.19-27
- _____ (2000)『ここからはじまる日本語文法』ひつじ書房, pp.20-24
- 山下喜代(2005)「漢語系接尾辞の語形成と助辞化—「的」を中心として」『日本語学 5 漢字漢語』(宮地裕 編) 明治書院, pp.138-150
- 山田 巖(1983)『現代語 論集 日本語研究 15』有精堂, pp.241-247

논문투고일 : 2013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20일

 <要旨>

節을 포섭하는 일본어 「的」에 관하여

본고의 목적은 현대 일본어에서 절을 포섭하는 「的」의 통어적 특성과 의미용법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이다. 원래 형태소나 단어를 語基로 취하는 어휘적이고 접미사적인 「的」이 문 레벨의 절을 선행부분으로 포섭하는 경우, 통어적이고 생산적인 복합사나 조동사와 같은 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的」가 文中에서 「というよう(な)」와 유사한 완곡적인 인용표식으로서의 기능이 인정되며, 문말에서는 「だ」와 결합하여 인식적 모달리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절을 포섭하는 「的」는 비공식적이고 우회적이며 주로 젊은 층이 웹상에서 다용하며 유행어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일본어에서 절을 포섭하는 「的」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On the Japanese [teki(的)] including a clau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yntactic features and meanings of [teki(的)] including a clause in modern Japanese. Originally the form [teki(的)] taking a morpheme or a word as the preceding basis can be regarded as lexical suffix. But it also can be considered as a compound particle or auxiliary verb when it is preceded by a clause. Because [teki(的)] including a clause can be approved the mark of quotation and indicate the epistemic modality. [teki(的)] including a clause shows informal, euphemistic and prevalent properties.

I estimate that the tendency of using [teki(的)] including a clause would be more popular in the future Japanese.